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을 전후하여 지인들 사이에서 '하는 일이 다 잘되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매일 아침 처음 만난 때의 인사인 '좋은 아침(good morning)'이라는 말에도 하루 동안 부대끼는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웃음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지내자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이나 공부를 하며 하루를 지내는 동안 때로는 서로 다투며 찡그리기도 하고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어떨까요?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이 많았고, 즐겁지 않았던 때도 많았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어 슬프게 했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어 슬펐던 일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을 맞이하거나 한 해를 시작할 때는 항상 행복을 꿈꾸며 즐겁게 살기를 원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노여움, 슬픔, 미움 등의 감정을 겪으며 행복감을 잃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변하고 말이 달라져서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최기형 교장선생님

지난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올림픽 펜싱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0:14로 뒤지다가 내리 5점을 얻어 승리했는데, 모두가 '끝'이라고 여기는 순간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상영 선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펜싱을 시작했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부모님께서도 운동을 반대하셨고 운동성적도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을까요? 박상영 선수의 인터뷰 글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결승전에서 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갑자기 나온 것인가?

중학교 때부터 쓴 훈련일지가 10권 정도 있다. 그 훈련일지에 적혀 있는 글이다. 훈련일지는 잘된 점과 고쳐야 할 점을 기록해 다음 경기 할 때 반영하도록 하는 일지다. 훈련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나에게 쓰는 다짐이나 삶에 대한 주문 등이 담겨 있다.

어떻게 펜싱선수를 꿈꾸게 되었나?

어려서부터 공부든 운동이든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었다. '칭찬'이라는 건 나와 거리가 멀었고 그건 내 몫이 아닌 거 보다 했다. 그러면서도 재능 있는 친구들이 받는 칭찬이 부러웠다. 그런데 어느 날 현희 코치님이 '상영인 훈련이 힘든데도 항상 표정이 밝아서 좋다. 보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다. '어? 내가 지금 칭찬 받는 거야? 칭찬?'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한 마디의 칭찬이 지금의 국가대표 펜싱선수 박상영을 만들었다.

지난 1월에 <할 수 있다>라는 책을 펴내며 '긍정의 아이콘'으로 다시 이름을 알리는 박상영 선수의 이 말을 살펴보면,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 때에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짐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항상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으며 칭찬해주는 멘토를 만났다는 점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개인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행복 또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자신에 대한 다짐이나 삶에 대한 주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한 해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선생님들을, 친구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을 항상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칭찬거리를 찾아 격려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선생님을, 학교를 믿고 학교교육을 이해하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학교 중앙현관에 '학생이 행복한 학교, 그래서 선생님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행복합니다.' 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문구를 매일 주문처럼 외우며 매일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 '모두가 행복한 동산' 이 되리라 믿습니다.

'행복 동산'에 들어온 2017학년도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은 진심으로 축하하며, 2017년 3월 1일 교장취임사를 대신합니다.

